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 '기후위기 대응 공동 실천' 결의

개인 텀블러 사용·분리수거 지침 마련 및 홍보 등 고등의회 차원에서 함께 실천 가능한 방안 제안해 학생생활규칙 등 학생들 직접 다시 쓰는 기회 가져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이하 고등의회)가 지난 15일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개최된 2021년 제1차 정기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동 실천'을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고등의회는 올해로 10년째를 맞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등의회 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 실천가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의회 차원에서 함께 실천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고, 모든 학교가 이에 따르기로 했다.

제안된 내용은 ▲패트병 버릴 때 라벨과 뚜껑 분리 ▲개인 텀블러 사용 ▲분리수거 캠페인 실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 급식 메뉴 줄이

기 ▲친환경 종이빨대 사용 및 종이빨대 만들기 캠페인 실시 ▲에너지·환경 지킴이 활동 ▲분리수거 지침 마련 및 홍보 ▲우산 빗물 제거기 비치 ▲손 건조기 설치 ▲SNS 해시태그 사용 캠페인 실시 ▲종류별 분리수거 쓰레기통 비치 ▲이먼지 재활용 ▲쓰레기 Vlog 촬영하기 등 다양한 실천 및 실천 공유 활동으로 구성됐다.

고등의회는 제안된 다양한 실천 내용 중 학교별로 1~2개를 선정하고, 실천 결과를 매 의회 회기 때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공동 실천' 결의에 이어 '혐오차별 대응 광주학생 공동 선언'을 결의하고, 초등의회 및 중등의회에 학

생의회 공동 사업으로 제안키로 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10주년을 맞아 학생생활규칙,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규정들을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다시 쓰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의회별 추천을 받아 총 15명 규모의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고등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됐다.

광주지역 관내 고등학교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의원과, 당연직 의원의 20% 이내로 공개모집하는 개방형 의원 등 총 92명의 의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광주여고 학생회장이기도 한 고등의회 남진희 의장은 "기후문제를 단순히 먼 미래의 일 또는 남의 일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로 인식했고, 함께 힘을 모아 해쳐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이번 실천 결의



를 추진했다"며 "학생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행동하는 시민으로서 사회변화를 견인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영암교육청, 월출학생자치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연합 학생자치회인 월출학생자치연합회 6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월 16일 중·고등학교 대표 36명, 4월 17일 초등학교 대표 32명으로 참석 인원을 나눠 운영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역량을 학생과 대표가 확산하고, 그 내재되어 있는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표출하기 위한 스펙트럼실러레이션의 이해와 활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의 삶과 공공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자치 디자인을 위한 방안으로 삶과 연결된 학생회 부서 조직을

통해 프로젝트 주제, 목표, 과정, 운영 설계의 과정을 단계별로 실습하며 참여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영암중학교 김00 학생은 "학생자치 회의를 열고, 담는 과정의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 실습한 방법을 학교에서 실천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오르막 시대'를 잘 지나 통합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암여자고등학교 윤00 학생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 재미있고 행복한 학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학생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완도교육청, 학교 참여 중심 지역학부모연합회 첫걸음

완도학부모연합회 화상회의 및 On-Line 선출 실시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장필)은 4월 16일 관내 초·중·고 학부모 대표 80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줌(Zoom)을 활용한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 2021. 지역 학부모회 연합회 구성 ▲ 2021. 학부모교육 추진계획 ▲ 학부모 연합회 운영 방향 안내 등 학교 참여 중심 학부모연합회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학부모 연합회 구성은 임무보자의 소견 발표와 앱(Band) 기반 실시간 투표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전년도 학부모연합회 대표 선거권 선출위원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와 투표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많은 걱정을 하였는데 오히려 섬이 많은 지리적 환경을 넘어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 뿌듯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신임 고금중 양영숙 회장은 "완도학부모연합회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지역특성을 유념하여 좀 더 포용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완도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지원에 중심을 두고 지역 학부모회 연합회가 활성화 하여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학부모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순천대, 다목적체육관 준공식 개최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은)는 최근 학생들의 생활체육 및 학습공간 수요 충족과 지역사회 체육시설 제공을 위한 '체육관 리모델링 및 교사 시설 증축공사'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순천대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교사동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안전 보강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재학생과 지역민에게 쾌적한 생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충분한 교수학습 공간 확보를 위해 1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 12월 착공, 2021년 2월에 준공하였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체육관동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연면적 3,343㎡ 규모로 농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시설로서의 활용은 물론 실내·외 골프연습장, 클라

이밍장 등 전문시설과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방송시설과 무대를 갖춰 지역 주민 행사 등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축 교사동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연면적 2,600㎡ 규모로 교수연구 및 실험공간, 수업공간은 물론 체력단련 및 요가·필라테스 등 기본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 평생교육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활용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